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듣는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
-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 드실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9일(금)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8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직접 만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안전관리와 지난주부터 시범사업 중인 민간참여 수산식품 이력제의 조기 안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는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지혜 (044-200-5441)